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6.07.15, 한-EU연구협력센터>

- EU 이사회, 2027년 호라이즌 유럽 예산을 집행위 제안보다 2억 3,100만 유로 줄이는 방안 추진(7.14)
 - 이사회 예산위원회는 Erasmus+ 예산도 집행위 제안(45억 1,000만 유로) 보다 1억 5,900만 유로(3.5%) 삭감할 것을 권고
 - 예산위원회는 호라이즌 유럽 삭감안 가운데 유럽연구위원회(ERC) 예산은 비교적 적은 폭인 550만 유로(0.25%)만 줄일 것을 제안
 - 반면 마리 퀴리 인력교류 프로그램(MSCA)과 유럽혁신위원회(EIC) 예산은 이번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으며, 대신 삭감의 대부분은 필라 2에 집중
- 헝가리, 호라이즌 유럽 참여 막힌 대학의 운영체제 전면 개편 추진(7.8)
 - 페테르 머저르(Péter Magyar) 신임 총리, 대학 운영체제 해체 및 EU 연구·교육 프로그램 복귀 추진
 - 이에 따라 집행위는 헝가리의 Erasmus+ 참여 복원 입장을 밝혔지만, 호라이즌 유럽 복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
 - 새 헝가리 정부는 개정법에 따라 비대학 재단은 올해 8월 말, 대학 재단은 2027년 8월 말까지 해산·개편하고, 대학별 운영 이관 방안도 마련할 계획
- 호라이즌 유럽 최신 공모에서 제외되는 국가는 어디인가?(7.14)
 - 우주·AI 등 민감한 연구 분야의 호라이즌 유럽 28개 과제는 일부 EU 역외 준회원국의 참여를 제한
 - 디지털·산업·우주 분야를 다루는 2026~2027년 워크프로그램에서 영국, 스위스, 뉴질랜드는 13개 공모에 참여 불가
 - 또한 이스라엘과 한국은 16개 공모에서 제외되며, 튀르키예와 우크라이나는 민감 분야 공모 28개 모두에 참여 불가
- (기타) ▲ERC 과학위원회, '기관 대상 ERC' 신설 논의에는 열려 있지만 우려도 제기(7.9) ▲유럽 테크 챔피언 이니셔티브 2.0, 유럽 스케일업에 최대 800억 유로 투자 유치 추진(7.14) ▲숫자로 보는 헝가리의 호라이즌 유럽 성과(7.8)